

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제설계공모 _ 2022. 1

NATIONAL DIGITAL HERITAGE CENTER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

설계자 _ Architect. 한중률 · 파블로 길 · 제이미 바르톨로메 _ JongRhul HAHN · Pablo Gil · Jaime Bartolome
 (주)한중률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· 길바르톨로메 아키텍츠 _ HAHN International Architects · GilBartolome Architects



발주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| 설계팀 김창원, 김수정, 이규호, 김유경, Alvaro González Serrano, Juan Rey, William Coral |
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리(S-1생활권) 문화시설용지(문S-1) 내 |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) | 대지면적 8,189㎡ | 건축면적 1,607㎡ | 연면적 8,951㎡ |
 건폐율 19.62% | 용적률 39.70% | 규모 지하 2층, 지상 3층 |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+ 철골트러스 | 마감 유리커튼월



공간과 매체의 도구

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직원부터 창작자, 방문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'공간적 악기'가 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.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도구는 콘텐츠를 발전시킨다.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향후 건물에서 일어날 활동들과 전시에 따른 변화와 미래의 기술적인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. 건축은 오랜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한다. 이는 경계 없는 사회(Liquid Society)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, 조화를 불러일으킨다.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디지털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현재 우리의 이상을 넘어서는 미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.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,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, 미래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될 것이다.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의 사용을 넘어 가치를 전달하는 '소통의 미디어 도구'로 기능해야 한다. 이를 위해 업사이클링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미디어 파사드를 계획했다. 이에 따라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다양한 공간과 영역에 따라 간결하면서도 유연하게 설계되었다. 건축물은 박물관 단지의 맥락에 어울리면서도,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가치를 더한다. 공공공간인 건물 앞 광장에서는 발표회나 이벤트, 전시 등을 열 수 있는 공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. 또한 북쪽과 동쪽을 관통하는 미디어파사드는 대형 스크린을 연출할 수 있다. 북쪽 정면의 사이의 주 출입구는 비나 과도한 햇빛을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하면서도 열린 공간이다.